

비상경제장관회의
23-26-1
(공개)

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

2023. 11. 15.

관계부처합동

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(요약)

I 최근 청년 쉬었음 추이 및 특성

- (추이) 최근 청년 고용률·실업률은 과거 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*하고 있으나, '23년 들어 '쉬었음' 청년 증가

* '23.10월 청년 고용률(46.4%)·실업률(5.1%) 역대 3위·최저

- '23년(1~10월) 쉬었음 청년은 청년인구의 4.9%인 41.0만명으로, '20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다, 금년 들어 증가 전환

* 청년 쉬었음 인구(만명): ('16)26.9 ('18)31.3 ('20)44.8 ('21)41.8 ('22)39.0 ('23.1-10)41.0
인구대비 청년 쉬었음 비중(%): ('16)2.9 ('18)3.4 ('20)5.0 ('21)4.8 ('22)4.6 ('23.1-10)4.9

- (특성) 男(57%), 20대後(49%), 고졸(62%) 비중이 높으나, '23년(1~9월, +2.3만명)은 女(+1.5만명), 20대初(+1.6만명), 대졸↑(+2.8만명) 위주 증가

- 쉬었음 청년 다수는 직장경험이 있고(75%) 구직의사도 보유(65%)
- 쉬었음 기간은 1년 미만이 절반 이상(56%)이나 장기 쉬었음 비중 증가 추세('18년 36→'23년 44%)
-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(33%), 다음일 준비(24%) 순

- (원인) 최근 쉬었음 증가는 구조·단기 요인이 복합적 영향

- 노동시장 이중구조 + 수시·경력채용 확대*로 '괜찮은 일자리' 기회 축소 → 원하는 일자리 취업 실패시 구직연장·쉬었음 선택

* 경력/수시채용 기업비중('20→'23, %, 인크루트): 38.9/41.4 →43.6/67.8

- 평생직장 개념 약화로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 증가
- 간호·배달 등 코로나 시기 확대되었던 일자리 축소,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로 해당부문 종사자·공시생 등이 쉬었음 유입

* 청년 취업자 증감('22.1~10월→'23.1~10월, 만명): (보건복지)5.7→△1.5 (운수창고)1.0→△2.6
청년 비경활인구 증감('23.5월, 전년비): (취업준비)△7.1만명(교원△2만명, 공시생 △2.4만명)

◇ 쉬었음 기간 장기화시 청년 개인의 고용가능성·질저하 뿐 아니라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성장을 저하 우려

☞ 쉬었음 청년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조사('23.7~10월)를 토대로 「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」 마련

[참고]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결과*

* 쉬었음 이행 과정·전망과 정책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(18~29세 청년 대상 설문조사 2,826명, 심층면접 45명) 진행(청소년정책연구원, '23.7~10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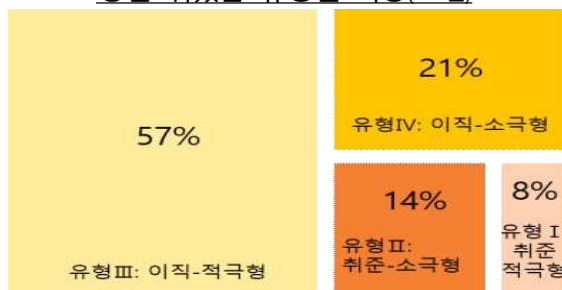
□ (유형) 쉬었음 청년을 직장경험 및 구직 적극성, 개인적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

유형	특성	쉬었음 이행과정 · 전망	시사점
①취준-적극형	직장경험 X 구직의욕 ↑	· 졸업후 충전 위해 쉬는 상태, 구직의지와 계획은 있지만 진로에 대해 일부 불안감	· 학교-노동시장 원활한 이행 위해 일경험, 진로탐색 등 지원 필요
②취준-소극형	직장경험 X 구직의욕 ↓	· 지속적 취업 실패 등으로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되며 구직의욕 감소, 도전 어려움	· 일경험·훈련, 진로탐색 + 자존감·사회성 회복 지원 병행 필요
③이직-적극형	직장경험 O 구직의욕 ↑	· 경력개발 위해 퇴직, 재취업 계획은 있지만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	· 이직이 보편화된 세대적 특성 반영 → 정책수요·개입 필요성이 가장 낮은 유형
④이직-소극형	직장경험 O 구직의욕 ↓	· 소진, 적성 불일치 등으로 퇴직, 상향이직 기대 불투명 으로 구직계획에 어려움	· 예방적 진로경험, 직장적응·진로변경 지원 + 고립·단절 악순환 방지 지원 필요
⑤취약형	환경적 취약성 ↑	· 부정적 경험·질병장애·가족돌봄 등으로 사회참여 의욕이 낮거나 일자리 진입에 어려움	· 개별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 해소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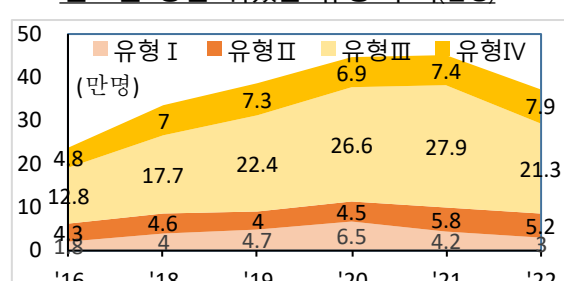
□ (비중) 이직-적극형(57%)이 가장 많으며, 이직-소극형(21%), 취준-소극형(14%), 취준-적극형(8%)順, 이직형 증가 추세

* 구직의욕은 향후 1년내 구직의사 여부로 추정, 유형V는 제외('23년 통계는 발표전)

청년 쉬었음 유형별 비중('22년)



연도별 청년 쉬었음 유형 추이(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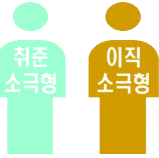


⇒ 쉬었음 청년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 집단

○ 이들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,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필요

Ⅱ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

- ◇ 쉬었음 유형별 특성을 고려, 재학→재직→구직 단계별 대응 강화
- 발굴·전달체계 강화,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등 인프라 개선 병행

유형 (주 정책대상)	단계	대응	
	재학	원활한 학교-노동시장 이행 지원	-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-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-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 등 취업역량 제고
	재직	노동시장 이탈 방지	- 신입사원 직장적응 지원 -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지원
	구직	특화 프로그램 집중관리	- 구직단념 예방 - 구직의욕 고취 - 특화 일경험·경력설계 지원
	취약청년 특성별 지원		- 고립은둔청년 - 가족돌봄청년 - 자립준비청년 - 장애·질병청년 - 학교밖청소년 특성별 지원 + 고용서비스 연계

발굴·전달 체계 강화

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

- ① 재학 조기개입을 통해 원활한 학교-노동시장 이행 지원
→ 졸업후 쉬었음 전환 예방^{취준형}

① (고용서비스)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* 신설('24^안 20개소)

-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(12→50개^大)와 지역청년 대상 거점형 대학일자리+센터('23년 49→'24년^안 60개^大) 확대^{고용부}

* 대학일자리+센터를 통해 인근 직업계고, 일반고 비진학 청년 대상 진로상담·직업체험 및 경력개발 경로마련·제시

② (일경험) 민간·정부·공공기관 일경험 기회를 '24년 총 7.4만명으로 확대*하고, 일경험통합플랫폼 구축('24년) ^{고용·기재·교육부}

* (민간)2.6만→4.8만명, (정부)2천→5천명, (공공)2만→2.1만명, (대학^{WE-Meet})13→18개 컨소시엄

③ (인재양성) 계약학과, 부트캠프, K-디지털트레이닝 등 기업수요기반 첨단인재양성을 강화*하고,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% 할인 ^{교육·고용부}

* (조기취업형계약학과)15→19개교, (부트캠프)10→42개교, (K-디지털트레이닝)3.6만→4.4만명

② 재직 직장 적응지원·문화개선 통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 → 이직 과정 쉬었음 예방 ^{이직형}

① (직장적응)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돕는 '온보딩 프로그램' 신설('24년, 44억원) ^{고용부}

*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·협업 교육을, 기업 CEO·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 교육 제공

② (문화개선) 일·생활균형 인프라 지원을 확대(50→850개소)하고,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(1인당 30만원) 신설('24년) ^{고용부}

③ 구직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 → 쉬었음 장기화 방지 및 탈출 지원 ^{소극형}

① (예방) 일상유지 지원·심리상담 등을 통해 초기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'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' 도입('24년, 281억원) ^{고용부}

* 쉬었음 청년이 부담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카페(10개 지자체) 통해 자조모임, 집단·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정책 연계

② (구직의욕) 니트 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'청년도전 지원사업' 지원인원을 확대하고(8천→9천명) 내실화 ^{고용부}

- 수당체계를 구직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로 개편하고, 직업훈련 수강시 훈련비 지원 우대*, 중기(3개월) 프로그램 확충 추진

* 현행: (지원율: %) (일반) 45~85 (국취 1유형, 2유형 특정계층) 80~100 (EITC 수급자) 72.5~92.5 (국취 2유형 청년·중장년) 50~85

③ (일경험 등) 니트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(6천명)을 운영하고,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재설계 서비스* 도입('24년) ^{고용부}

* 가칭 청년카페(10개 지자체)를 통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직을 위해 쉬고 있는 청년에게 직업 상담, 경력 재설계 서비스 등 제공

4 **취약
청년**

특성별 사회활동 장애요인 해소 + 고용서비스 연계
→ **사회복귀·적응지원** 취약형

- ❶ **(고립은둔청년)** 사회복귀·재적응을 위해 마음회복·관계형성·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('24년, 13억원) 복지부
 - ❷ **(가족돌봄청년)** 자기돌봄비(연 200만원)를 신설('24년~)하고,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(월 70만원) 지원 확대(51→60개 시군구) 복지부
 - ❸ **(자립준비청년)** 자립수당을 인상하고(월40→50만원), 전담인력(180→230명) 및 맞춤형 사례관리* 지급대상(2,000→2,750명) 확대 복지부
- * 주거, 교육, 의료비 등 개별상황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(월 40만원 한도)
- ❹ **(장애·질병청년)** 장애인 취성패(1.1만→1.3만명)·자활근로(6.6만→6.9만명)를 확충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(147→172개소) 복지·고용부

5 **인프라**

발굴·전달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

- ❶ **(발굴)** 쉬엠클럽 관계기관 정례협의체*를 신설하고('24~), 공공데이터연계 등을 통한 니트 위험군 발굴 방안 모색('23.12~) 국조고용복지여가행안부
- * 관계부처·기관(국조실, 고용·복지·여가·행안부, 아동권리보장원, 청소년정책연구원, 아동복지협회 등)이 취약청년 pool 공유 및 지원사업 연계방안 등 논의
- 취약청년 신청·발굴창구를 다양화*하고, 전담인력을 통한 밀착지원을 위해 가칭청년미래센터 신설('24년, 4개 시도)
- * 온오프라인, 가족주변인 신청 허용, 학교·의료·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선제발굴 강화
- ❷ **(중소기업)** 산리단길*, 스마트공장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, 취업지원금·원하청 상생지원** 등 통해 中企 취업유인 제고 산업·중기부
- * 주거·편의시설, 문화센터 확충 등을 통해 공장형 산단을 청년친화공간으로 탈바꿈
- **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신설(2.4만명, 483억원), 공동근로복지기금 매칭확대(10억→20억원), 2·3차 협력사 상생연대형성 지원(100~200%매칭, 50억원)

순 서

I . 추진배경	1
II . 최근 청년 쉬었음 추이 및 특징	2
III . 쉬었음 청년 증가 원인분석	4
[참고]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결과	5
IV .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	8
V . 향후 추진일정	17

I. 추진배경

□ 최근 청년(15~29세) 고용률·실업률은 과거 대비 양호한 흐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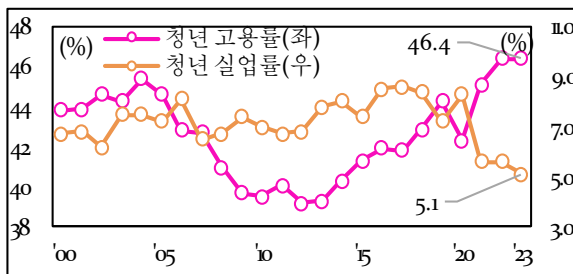
- '23.10월 청년 고용률(46.4%, 0.0%p)·실업률(5.1%, △0.5%p)은 역대 3위·최저, 20대 후반 고용률*(72.7%, +0.8%p)은 역대 최고

* 25~29세 고용률(10월 기준, %): ('00)67.4 ('05)69.4 ('10)67.6 ('15)69.2 ('20)67.7 ('21)69.8 ('22)71.9 **(23)72.7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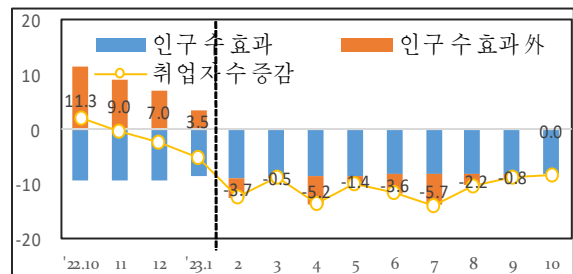
- 청년 취업자는 인구감소(△17.6만명) 등으로 감소세(△8.2만명)이나, 취업자 감소분중 인구효과가 대부분(△8.2만명, 99.8%)

* 청년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2.10)2.1 ... ('23.6)△11.7 (7)△13.8 (8)△10.3 (9)△8.9 **(10)△8.2**

청년 고용률/실업률 추이(매년 10월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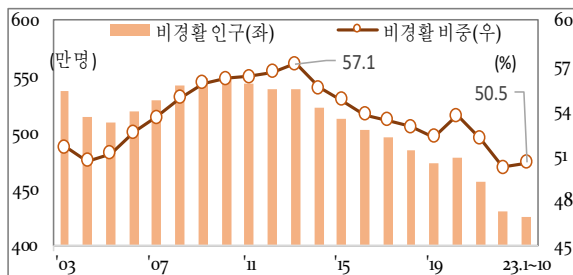


청년 취업자 증감 분해(전년동월비, 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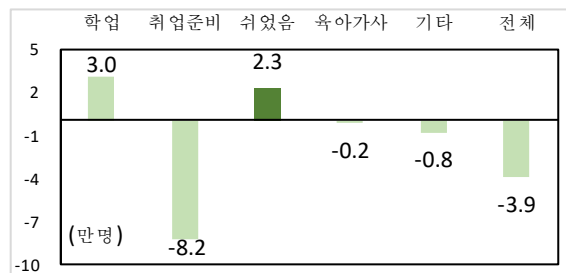


□ 다만, '23년 들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, 특히, 별다른 활동 없이 '그냥 쉬었음' 청년 증가

청년층 비경활인구 규모(만명) 및 비중(%)



활동별 청년 비경활 인구 증감('23.1~9월 전년비, 만명)



□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, 개인적으로는 이력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고립은둔化 가능성*

* 닛트 경험 청년은 미경험청년 대비 6~9년후 고용가능성 및 임금수준 모두 하락(남재량(노동연) 5년 연속 비구직 닛트 청년의 삶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크게 하락(남재량(노동연))

- 사회적으로도 인구감소 상황에서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

☞ 쉬었음 증가에 대응,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필요

Ⅱ. 최근 청년 '쉬었음' 추이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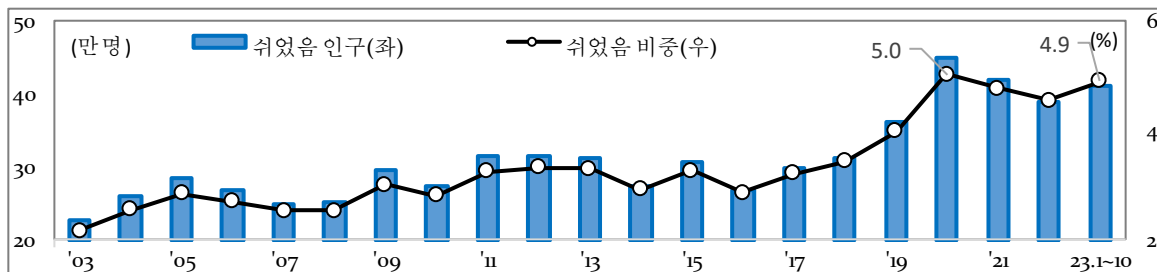
□ (총괄) '23년 들어 청년 쉬었음 증가 전환(41.0만명, +2.0만명)

- '23년(1~10월) 쉬었음 청년은 41.0만명(+2.0만명)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.9%(+0.3%p),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9.6%(+0.6%p)
- 쉬었음 청년 규모·비중은 '16년(26.9만명, 2.9%) 이후 급증하다 '20년 정점(44.8만명, 5.0%)으로 다소 감소, 금년 들어 증가 전환

* 청년 쉬었음 규모(만명): ('23.1)45.9 (2)49.7 (3)40.8 (4)41.4 (5)38.6 (6)38.6 (7)40.1 (8)40.4 (9)37.3 (10)36.6

* 청년 쉬었음 증감(만명): ('23.1)3.5 (2)4.5 (3)△1.5 (4)3.4 (5)4.0 (6)1.8 (7)4.0 (8)2.3 (9)△1.4 (10)△0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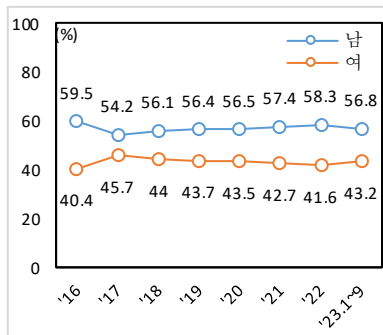
< 청년 쉬었음 규모(만명) 및 인구대비 비중(%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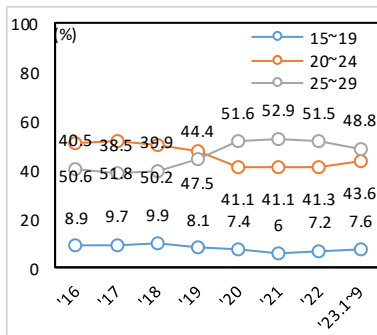
□ (특성) '23년(1~9월) 쉬었음(+2.3만명) 여성, 20대 초, 대졸 이상 위주 증가

- (성별) 남성(23.5만명)이 여성(17.9만명)의 약 1.3배 수준('23.1-9월)이나, '23년(1~9월)에는 여성 위주로 증가(+1.5만명)
- (연령) 20대 후반(20.2만명), 20대 초반(18.1만명), 10대 후반(3.1만명) 順('23.1-9월), '23년에는 20대 초반 중심으로 증가(+1.6만명)
- (학력) 고졸 이하(25.6만명), 대졸 이상(9.7만명), 초대졸(6.1만명) 順('23.1-9월), '23년에는 대졸 이상이 가장 크게 증가(+2.8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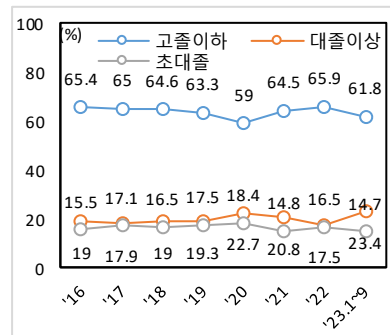
< 성별 청년 쉬었음(%) >



< 연령별 청년 쉬었음(%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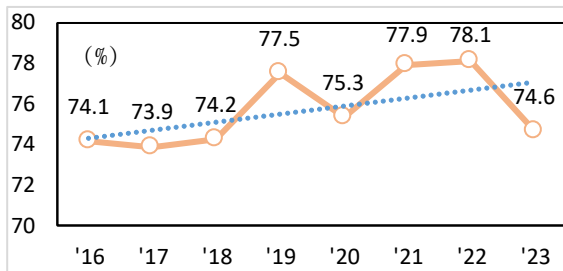
< 학력별 청년 쉬었음(%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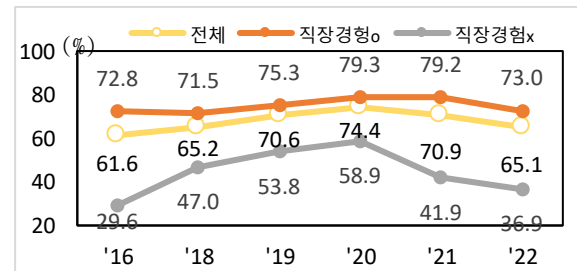
□ (직장경험·구직의사) 직장경험과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 다수

- (직장경험) 직장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이 70% 이상('23년, 74.6%)이나, '23년에는 직장경험 있는 쉬었음 청년 비중 감소(△3.5%)
- (구직의사) 쉬었음 청년의 절반 이상('22년, 65.1%)이 1년 이내 구직의사가 있으며, 이 중 66.4%는 구체적 구직계획도 보유
 - 직장경험 있는 쉬었음 청년의 구직의사 비중(73.0%)이 직장경험 없는 쉬었음 청년(36.9%)의 약 두배 수준

직장경험 있는 청년 쉬었음 비중(매년 8월, %)



구직의사 있는 청년 쉬었음 비중(매년 8월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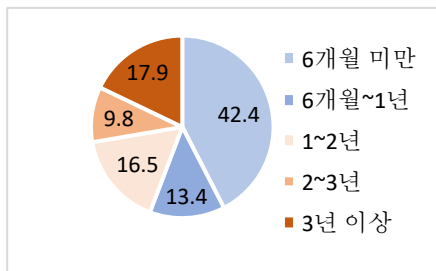
□ (기간) 쉬었음 기간 장기화 경향

- 쉬었음 청년중 절반 이상('23년, 55.8%)은 쉬었음 기간*이 1년 미만이나, 장기 쉬었음 비중 증가**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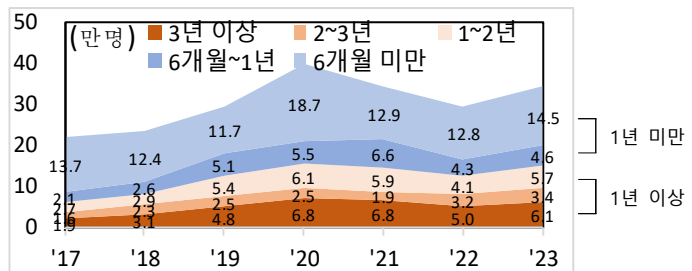
*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는 미취업 기간, 없는 경우는 졸업·중퇴·수료 후 기간으로 계산

** 1년 이상 청년 쉬었음 비중(매년 5월, % 재학·휴학생 제외): ('18)35.5 ('20)38.9 ('22)42.0 ('23)44.2

23.5월 청년 쉬었음 기간별 비중(%)



기간별 청년 쉬었음(매년 5월, 만명)



□ (사유)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(32.5%)가 최대 사유

- 청년의 경우 他연령 대비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(32.5%), 다음일 준비를 위해(23.9%) 순 비중이 높은 경향('23.8월)

* 청년 쉬었음 주된 사유('22.8월→'23.8월, %): 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27.8→32.5 (다음일 준비)19.5→23.9 (몸이 좋지않음)23.6→18.2

* 전연령 쉬었음 주된 사유('23.8월 %): (몸이 좋지않음)37.3 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19.0 (퇴사후 쉼)18.4

Ⅲ. 쉬었음 청년 증가 원인분석

◇ 노동시장 미스매치, 수시·경력채용 및 이직 확대 등 구조적 요인과 기저효과 등 단기 요인이 복합적 영향

□ (구조) 노동시장 미스매치 + 수시·경력채용 및 이직 확대

- (미스매치) 노동시장 이중구조*가 지속되는 가운데, 최근 수시·경력 채용 확대**로 사회초년생의 '괜찮은 일자리' 기회 축소

*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(% , 일자리행정통계): ('18)46.1 ('19)47.6 ('20)49.0 ('21)47.3

** 경력직 위주 채용 기업 비중(% , 인크루트): ('20)38.9 ('21)40.4 ('22)43.6

신입사원 수시채용 기업 비중(% , 인크루트): ('20)41.4 ('21)49.9 ('22)69.1 ('23)67.8

-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 취업 실패시 하향 취업보다 구직연장* 또는 쉬었음을 선택하는 경향

* 대졸자 첫취업 소요기간(개월, 청년층 부가조사): ('20)7.2 ('21)7.7 ('22)7.8 ('23)8.2

- (이직 확대) 평생직장 개념 약화, 청년들의 이직에 대한 거부감 완화 등으로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 증가

* 1,124개 기업 대상 조사결과 68.7%가 MZ세대의 조기퇴사 비중이 높다고 응답(사람인 '228월)

* 연령별 일자리 이동률('20→'21년 % , 일자리이동통계): (~30세)20.9 (30대)15.9 (40대)13.6 (50대)14.2 (60세~)14.7

□ (단기) 기저효과 +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

- (기저효과) 간호·배달* 등 코로나 시기 확대되었던 일자리가 축소되며 이들 일자리에 종사하던 청년이 일부 쉬었음 유입

* 청년 취업자 증감('22.1~10월→'23.1~10월, 만명): (보건복지)5.7→△1.5 (운수창고)1.0→△2.6

- (공공부문) 최근 청년들의 공공부문 선호도가 낮아지며* 과거 공시생 등이 쉬었음으로 유입 가능성**

*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: ('13)74.8대1 ... ('21)35대1 ('22)29.2대1 ('23)22.8대1

** '23.5월 청년비경활인구중 취업준비생은 전년동월비 △7.1만명(교원△2만명, 공시생 △2.4만명) 감소, 쉬었음 4.0만명 증가

[참고]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결과*

* 쉬었음 이행 과정·전망과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(18~29세 청년 대상 설문조사 2,826명, 심층면접 45명) 진행(청소년정책연구원, '23.7~10월)

□ (유형별 특성) 쉬었음 청년을 직장경험 및 구직 적극성, 개인적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

쉬었음 청년 유형				쉬었음 청년 이행과정	
구직의욕 직장경험	높음	낮음	기타		
없음	유형Ⅰ: 취준-적극형	유형Ⅱ: 취준-소극형	유형Ⅴ: 취약형	학 교	직장 (①취준-적극형)
있음	유형Ⅲ: 이직-적극형	유형Ⅳ: 이직-소극형			직장1 → 직장2 (②이직-적극형)
					직장 → (③이직-소극형)
					(④취준-소극형, ⑤취약형)

① (유형Ⅰ: 취준-적극형) 직장경험 無, 구직의욕 高

- (특성) 졸업 후 충전을 위해 쉬었음 선택, 구직의지·계획은 있지만 공채감소 등으로 진로에 대해 일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
- (시사점) 지속적으로 구직의욕을 가지고 학교-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일경험, 진로탐색 등 지원 필요

현장 목소리

- ▶ "주변에서 3학년때 휴학하려면 졸업하고 쉬라고 해서 쉬고 있어요"(20초, 6개월~1년 쉼)
- ▶ "편하게 있다가도 문득 뭔가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"(20중, 6개월~1년 쉼)
- ▶ "공채라도 신입 들어가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."(20중, 6개월 미만 쉼)

② (유형Ⅱ: 취준-소극형) 직장경험 無, 구직의욕 低

- (특성) 진로 미확신, 지속적 취업 실패 등으로 쉬었음 장기화, 구직의욕 감소,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취업 도전에 어려움

- (시사점) 일경험·훈련, 진로탐색 지원과 함께 장기간 사회 활동 위축에 따른 자존감·사회성 회복 지원 병행 필요

현장 목소리

- ▶ "소방공무원 준비하다 부상으로 좌절하고 계속 쉬는 것 같아요"(20후, 1~3년 쉼)
- ▶ "취업에 올인 했던적도 있지만 지금은 좀 지쳤고 도전의식도 안생겨요"(20후, 1년~3년 쉼)

③ (유형Ⅲ: 이직-적극형) 직장경험 有, 구직의욕 高

- (특성) 이전 직장보다 나은 조건·경력 등을 위해 퇴직, 재취업 계획은 있지만 바로 진입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
 - * 다음이직까지 재충전, 일자리 동향파악, 자격증 준비 등으로 시간 보냄
- (시사점) 이직이 보편화된 세대적 특성 반영 → 정책수요 및 개입 필요성이 가장 낮은 유형

현장 목소리

- ▶ 지금 쉬고 있어 편안하고 내년에 재취직을 하면 되니까 만족해요"(20중, 6개월~1년 쉼)
- ▶ "보통 2년, 3년에 한번씩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"(20중, 쉼 기간 6개월 미만)

④ (유형Ⅳ: 이직-소극형) 직장경험 有, 구직의욕 低

- (특성) 이전 직장에서의 소진, 적성 불일치 등 이유로 퇴직, 상향 이직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 진로고민 등 구직계획에 어려움
- (시사점) 예방적 진로경험, 직장적응 및 진로변경 지원과 함께 장기화에 따른 고립·단절 악순환 방지 위한 사회복귀 지원 필요

현장 목소리

- ▶ "제가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위축되어서 그만둔 측면도 있어요"(20후, 6개월 ~1년 쉼)
- ▶ "6개월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굳이 일을 안할 거 같아요"(20후, 6개월 ~1년 쉼)
- ▶ "같은 업계에 재취업하면 워라밸이 없을 것 같아 다시 시작할지 고민이에요"(20후, 6개월 미만 쉼)

⑤ (유형V: 취약형)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니트화 위험성 高

- (특성) 가정·학교 등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사회참여 의욕이 낮거나 질병·장애, 가족돌봄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 진입에 어려움
- (시사점) 사회참여 활성화, 돌봄부담 경감, 유연한 일자리 제공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 해소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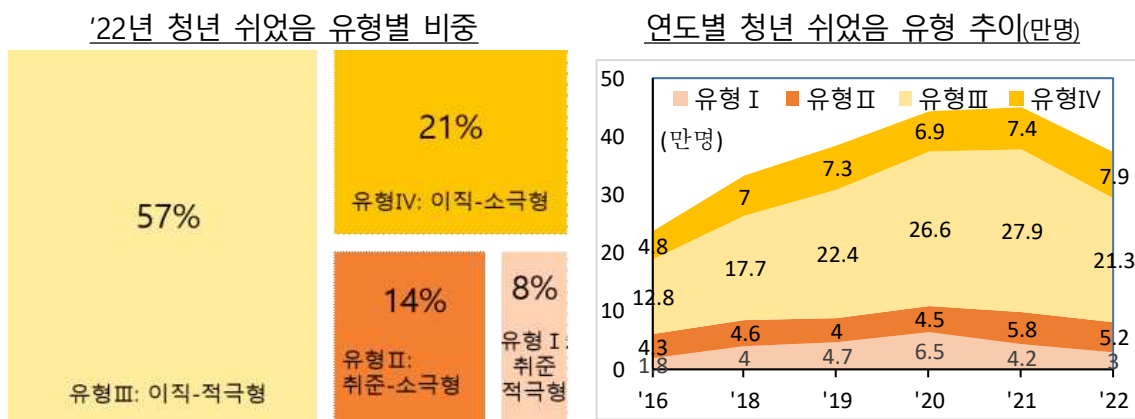
현장 목소리

- ▶ "밖에 나가는 상황 자체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"(20중, 6개월~1년 쉼)
- ▶ "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는데 1인분을 못하는 것 같아.자원이 있으면 좋겠어요"(20후, 3~5년 쉼)

□ (유형별 비중) 유형Ⅲ이직-적극형(57%)이 가장 많으며, 유형Ⅳ이직-소극형(21%), 유형Ⅱ취준-소극형(14%), 유형Ⅰ취준-적극형(8%) 순('22.8월)

* 구직의욕은 향후 1년내 구직의사 여부로 추정, 유형V는 제외('23년 통계는 발표전)

○ 장기적으로 유형Ⅲ이직-적극형이 증가 추세이나, '22년에는 유형Ⅲ이직-적극형은 감소하고 유형Ⅳ이직-소극형이 증가



⇒ 쉬었음 청년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 집단

- 이들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,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필요

Ⅳ.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

◇ 유형별 특성을 고려, 재학→재직→구직 단계별 대응 강화

- ① **취준형:** 재학 단계 조기개입 통한 원활한 학교-노동시장 이행 지원
→ 졸업 후 쉬었음 예방
- ② **이직형:** 재직 단계 적응지원·직장 문화개선 통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
→ 이직 과정 쉬었음 예방
- ③ **소극형:** 구직 단계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집중관리
→ 쉬었음 장기화 방지 및 탈출 지원
- ④ **취약형:** 특성별 사회활동 장애요인 해소 + 고용서비스 연계
→ 사회복귀·적응지원

◇ 발굴·전달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등 인프라 개선 병행

유형 (주 정책대상)	단계	대응	
	재학	원활한 학교-노동시장 이행 지원	-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-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-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 등 취업역량 제고
	재직	노동시장 이탈 방지	- 신입사원 직장적응 지원 -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지원
	구직	특화 프로그램 집중관리	- 구직단념 예방 - 구직의욕 고취 - 특화 일경험·경력재설계 지원
	취약청년 특성별 지원		- 고립은둔청년 - 가족돌봄청년 - 자립준비청년 - 장애·질병청년 - 학교밖청소년 특성별 지원 + 고용서비스 연계

발굴·전달 체계 강화

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

1. 재학

취준-적극형

취준-소극형

❖ 재학단계부터 조기개입하여 원활한 학교-노동시장 이행 촉진

-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, 일경험 확대,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 강화를 통해 조기 진로탐색과 취업역량 강화 지원

①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^{고용부}

* 구직과정 가장 큰 애로('22, 고용부 청년일자리 인식조사): 적성·흥미 파악 어려움(57.3%), 경험·경력 부족(52.4%), 학력·자격증 등 스펙부족(48.0%), 원하는 일자리 부족(47.1%)

- (대학생) 대학 저학년부터 체계화된 경력설계와 훈련·일경험 등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('23년 12 → '24년^안 50개 대학, 389억원)

- (1~2학년) 심층상담, 직업탐색(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등), 역량제고 등 지원
- (3~4학년) 취업역량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·일경험 제공

- (고교생)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직업계고·일반계고 비진학 고교생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 신설('24년^안 20개소, 62억원)

- (운영)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20개 시범도입)와 인근 고등학교 매칭, 서비스 제공
- (프로그램) 심층상담, 진로·직업체험 제공 및 경력개발 경로, 장기 성장경로 마련·제시

- (지역청년) 지역 내 미취업청년 대상 지역·산업 특화 프로그램*을 제공하는 거점형 대학일자리+센터 확대('23년 49 → '24년^안 60개 대학)

*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수요를 고려, 특화 역량강화·취업지원(지역청년 50% 이상 참여)

< 사례: 원광대, 배재대 지역 특화 프로그램 >

- (원광대) 전북 익산 식품전문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식품 분야 전문가 양성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→ 직무교육 후 채용 매칭 서비스 제공
- (배재대) 유성관광특구 등 관광특구가 발달한 지역산업에 맞춰 전문 소물리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호텔 및 관광산업 관련 기업으로의 채용연계 지원

②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

* 청년이 바라는 취업서비스('21, 중기중앙회):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 (73.7%), 구직활동지원금·생활비 지원(59%), 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(52.9%)

- **(민간)**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탐방·프로젝트·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('23년 2.6만 → '24년^안 4.8만명, 1,663억원) **고용부**

- **(기업탐방형)**: 1만→1.5만명) 기업 방문,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해 직무탐색(5일 이내)
- **(프로젝트형)**: 2천→6천명) 직무기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(2개월 내외)
- **(인턴형)**: 7.7천→1.9만명) 국내·외 기업에서 직접 과업 수행(2~4개월)
- **(ESG지원형)**: 6천→8천명) 기업 등이 ESG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직무교육 등 참여(3~6개월)

- **(공공)** 중앙부처('23년 2천 → '24년^안 5천명)·공공기관('23년 2만 → '24년^안 2.1만명) 청년인턴 규모 확대

-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내실화 위한 제도적 지원* 강화 **기재부**

* 6개월 이상 인턴채용 실적 경영평가 반영 및 우수 공공기관 포상, 인턴책임관 지정, 인턴 수수료증 차등화(상위 20% S등급 부여) 등

- **(대학)**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학중 일경험을 제공하는 위밋(WE-Meet) 프로젝트* 참여대학 확대('23년 13 → '24년^안 18개 컨소시엄) **교육부**

* 기업이 제시한 문제해결형 과제 수행, 재직자 멘토링, 인턴십 등 제공 및 학점인정

- **(플랫폼)** 일경험통합플랫폼을 구축('24년~)하여 다양한 일경험 정보 통합 제공, 청년-프로그램 맞춤형 매칭 지원 **고용부**

* 중앙부처 + 지자체, 공공기관('24) → 민간기업 順 구축 예정

3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 강화 등 취업역량 제고

- **(직업계고)**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확대 **고용부** ('23년 55 → '24년^안 75개 118억원) 및 첨단분야 중심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** 지원 **교육부** ('24년^안 1,350명)

* 직업계고와 민간 전문훈련기관이 협업하여 재학 3년간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제공

** 직업계고 졸업(예정)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와 연계한 현장교육, 취업 컨설팅 제공

- **(대학)** 조기취업형 계약학과(258억원), 부트캠프(630억원) 등 대학-민간 협업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과정 확충 **교육부**

- **(계약학과)**: 15→19개교) 대학-기업이 학생 공동 선발 후 기업맞춤형 교육, R&D 등 운영
- **(부트캠프)**: 10→42개교)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 교육과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취업 지원

- (K-디지털트레이닝*) 기업수요에 맞춰 지원분야(디지털→반도체, 이차 전지 등 첨단산업) 및 규모('23년 3.6→'24년^안 4.4만명, 4,732억원) 확대^{고용부}

* 민간 혁신훈련기관, 첨단산업분야 선도기업, 대학 등이 참여하여 첨단산업·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제공

- (자격증)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% 할인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('24년~)^{고용부}

* 산업인력공단 시행 497개 국가기술자격시험 대상('24년^안 242억원)

2. 재직

이직-적극형

이직-소극형

❖ 노동시장 유입 청년이 입사 초기 적응곤란으로 이탈하지 않도록
신입사원 직장적응 및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지원

① 신입사원 직장적응 지원^{고용부}

-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('24년~, 44억원)
 -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·협업 교육을, 기업 CEO·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 교육 제공

- (입직청년) 조직 내 성장방법,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, 비즈니스 매너 등('24^안 450회)
- (조직문화 교육) 기업의 채용브랜딩 가치, MZ세대 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, 직장 내 괴롭힘, 공정한 성과보상 등 교육('24^안 160회)

② 청년이 선호하는 일·생활균형 직장문화 확산^{고용부}

* MZ세대 직장선택 기준('23.4월, 한경협): 워라벨(36.6%), 월급·성과보상(29.6%), 정년보장·장기근무 가능성(16.3%), 개인·기업의 발전가능성(10.4%)

- (유연근무) 인프라 구축비 및 컨설팅 지원 확대·다양화
 - 재택·원격근무 외 시차·선택근무 등에도 출퇴근 기록 등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('23년 50 → '24년^안 850개소)

- 유연근무 도입을 원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컨설팅* 제공('24년^안 400개소)

* 해당 사업장 전반적인 직무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유연근무 활용 방법 등 제시

- (근로시간) 사업장 전반의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신설*('24년~)

* 지원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(30만원)을 최대 1년간 지원

3] 공정일터 조성^{고용부}

- (직장 내 괴롭힘)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* 추진
 - *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·중재 도입,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등 검토
- (부당행위) 임금체불 등 청년이 주로 겪는 부당행위 근로감독 및 제재 강화*
- *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, 익명제보 접수기간 운영 등

3. 구직

취준-소극형

이직-소극형

❖ 구직단념 예방, 구직의욕 고취, 일경험·경력재설계 지원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쉬었음 장기화 예방 및 탈출 지원

1] 구직단념 예방: ^{가칭}청년성장프로젝트 도입^{고용부}

- 초기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 예방을 위해 지자체 협업으로 ‘^{가칭}청년성장프로젝트’ 신설(‘24년~, 281억원)
- 쉬었음 청년이 부담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, 집단·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정책 연계

- (대상) 미취업 청년 ■ (전달체계) 지자체 ^{가칭}청년카페 (24년^안 10개소)
- (프로그램) 자조모임, 심리상담 등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지원¹⁾ + 청년정책 연계²⁾
- 1) 지역 내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와 협업하여 참여자 발굴→ 지역특화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역량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등 제공 → 지자체 자체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도 연계·지원
- 2) 청년도전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, 국민내일배움카드, 청년 일경험 지원 등

2] 구직의욕 고취: 청년도전지원사업 강화^{고용부}

- 구직단념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, 사회 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는 ‘청년도전지원사업’ 강화(425억원)
- (대상) 구직단념청년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청년 등
- (프로그램) 심층상담, 사례관리, 진로탐색,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 및 수당(최대 300만원) 제공 →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,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
- 기존 단기(5주)·장기(5개월) 외 중기 프로그램(3개월)을 신설하고, 지원인원을 확대(‘23년 8천→‘24년^안 9천명)

- 참여 및 이수수당*을 참여자의 구직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(~23.末), 운영기관 평가시 사후관리실적 평가 관리 강화**

* 현재 참여자에 대해 참여수당 월50만원(최대 250만원) 및 이수수당(최대 50만원) 지급

** 운영기관 평가시 노동시장 참여실적을 본 평가 항목에 반영(현재는 가점으로만 반영)

-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우대* 추진('24년~)

* 현행: (지원율: %) (일반) 45~85 (국취 1유형, 2유형 특정계층) 80~100
(EITC 수급자) 72.5~92.5 (국취 2유형 청년·중장년) 50~85

③ 특화 일경험 및 경력재설계 지원 고용부

- (일경험) 니트 청년 예방 및 탈출 지원*을 위해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** 운영(24년^안 6천명)

* 저임금이라도 취업상태 진입시 니트 탈출 가능성이 높아짐 → 저임금 진입후 경력관리, 직업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지원 필요

** 민간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(고용부)으로 참여

< 사례: 삼성희망디딤돌 2.0 사례('23.下 ~)>

- (개요)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,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
- (지원인원) 120명 (일경험 기간) 4~15주 (분야) 제조/기술, 조리 등 5개 직무

- (경력 재설계)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직을 위해 쉬고 있는 청년에게 직업 상담, 경력 재설계 서비스 등 제공('24년~)

* 가칭청년카페(10개 지자체)를 통해 서비스 제공

4. 취약청년

취약형

❖ 취약청년 특성별*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장애요인 해소 + 고용서비스·민간 인턴십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지원

* 고립은둔청년, 가족돌봄청년, 자립준비청년, 장애·질병 청년 등

① 취약청년 특성별 지원 강화

- (고립은둔청년*) 사회복귀·재적용을 위해 마음회복, 사회관계 형성, 공동생활, 자조모임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** 신설('24년~, 13억원) 복지부

- * 사회적 관계지지 단절(고립)되거나 한정된 장소(집, 방 등)에 머물러 있는(은둔) 청년(18~34세)
- ** 초기 상담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라 유형화 후 청년당사자(320명) 마음회복, 사회관계 형성, 공동생활(은둔청년특화) + 가족(640명) 소통교육, 자조모임 등 맞춤형 지원

○ **(가족돌봄청년)** 돌봄부담을 덜고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*(연 200만원)를 신설하고, 일상돌봄서비스**(월 70만원) 확대 **복지부**

- *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, 학업취업 준비, 자기개발 등 위해 연 200만원 지원('24~)
- ** 돌봄·가사·식사 등 서비스 바우처 제공('23년 51→'24년^안 60개 시군구)

○ **(자립준비청년*)**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수당 인상(월 40→50만원), 전담인력(180→230명)·맞춤형 사례관리**(2,000→2,750명) 확대 **복지부**

- * 아동복지시설, 위탁가정 등 보호종료(만 18세) 이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
- ** 주거, 교육, 의료비 등 개별상황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(월 40만원 한도)

○ **(장애·질병청년)** 장애인 취성패*·자활근로**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*** 등 취업 인프라 개선 **복지·고용부**

- *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- 취업역량 강화 - 고용안정·유지 지원('23년 1.1만→'24년^안 1.3만명)
- ** 자활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 지원('23년 6.6만→'24년^안 6.9만명)
- ***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·편의시설 +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사업장('23년 147→'24년^안 172개소)

○ **(학교밖청소년*)** 훈련·일경험 등 자립·취업 지원**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선제발굴 및 심리·사회적 관계 조기 회복 지원***('24년~) **여가부**

- * 초·중학교를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고등학교 미진학·제적·퇴학한 학령기 청소년(9~24세)
- ** 맞춤형 직업훈련(210→510명), 인턴십·직장체험 신설(340명), 취업지원 등
- *** 지역별 은둔·고립 청소년 전담인력을 통해 찾아가는 발굴 및 상담 →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방문학습 및 치유 등 종합 서비스 지원 → 사후관리·자립지원('24년^안 10억원)

2 고용서비스 연계 **복지·고용부**

○ 취약청년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민간 청년 인턴십과 연계체계 구축

- * 사례관리 시 고용서비스(청년도전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, 내일배움카드, 일경험 등) 및 민간 ESG차원의 인턴십 프로그램 안내·연계

5. 인프라

1. 발굴·전달체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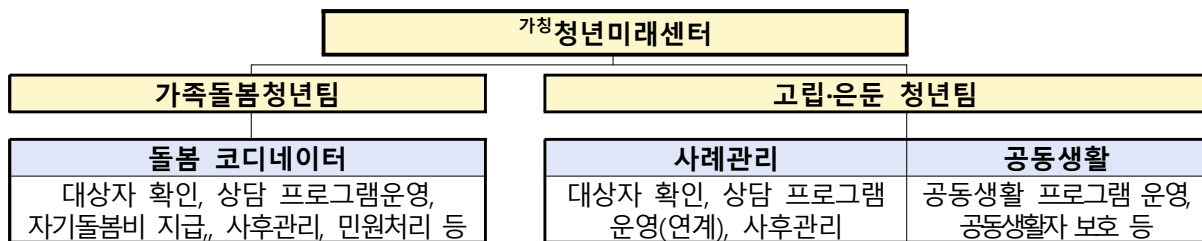
❖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, 공공데이터 활용, 전담센터 신설 등 쉬었음 및 취약청년 **발굴·전달체계** 강화

① 쉬었음·니트 청년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

- (**정례협의체**) 관계기관간 취약청년 pool 공유 및 지원사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앙단위 정례협의체 신설('23.12~) 국조실·고용·복지·여가·행안부
 - (구성) 국조실(주재), 중앙부처(고용부, 복지부, 여가부, 행안부 등), 관계기관(아동권리보장원, 청소년정책연구원, 아동복지협회,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)
 - (운영) 분기 1회(필요시 수시 개최) 유관기관 지원사업 현황, 청년 니트 아웃리치 방안 등 논의
- (**공공데이터**) 교육-고용-복지 공공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니트 위험군 발굴 방안 모색(~'24) 교육·복지·고용부

② 취약청년 발굴 강화 및 전담 전달체계 구축 복지부

- (**발굴**) 고립·은둔·온·오프라인 가족·주변인 등 신청창구를 다양화*하고, 가족돌봄 전담기관·인력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 내 선제발굴 강화**
 - * 온라인 커뮤니티, 방문, 전화문자 등 신청창구 다양화, 본인외 가족주변인 신청 허용
 - ** 학교·의료·사회복지사 및 지역인적안전망 대상 발굴지침 배포 및 교육,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통한 기획발굴 등
- (**전달체계**) 전담인력을 통한 상담, 사후관리 등 취약청년 밀착 지원을 위해 가칭 청년미래센터 신설('24년, 4개 시도)



③ 정책홍보 강화 국조실·고용부

- 쉬었음 및 취약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·오프라인*을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 강화
 - * (온라인) 온라인 청년센터, 워크넷 등 (오프라인) 지역청년센터, 대학일자리*센터 등

2.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

❖ 청년 쉬었음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·인식개선, 취업자 지원 확대 등 **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**

1] 중소기업 근로환경 및 인식개선

- (**산리단길**) 기존 공장 중심 산단을 청년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근로·정주여건 개선 지원^{산업부}
 - * 주거(기숙사형 오피스텔·편의시설(카페 등) 확충('23년 958억→'24년 1,867억원), 청년문화센터·아름다운거리 확충('23년 6→'24년 58개소), 노후공장 리뉴얼 지원('24^{신설} 150개사) 등
- (**스마트공장**)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로봇·자동화* 및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^{중기부}
 - * 정부보조('23년 201억 → '24년^안 317억원), 정책금융(융자·보증) 등 지원
 - ** 실증분석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 사업체의 청년고용 비중 증가('22.조세연)
- (**정보제공**) 청년 등이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'참 괜찮은 기업' 선정기준 강화 및 채용정보 제공 확대^{**중기부}
 - * 정부지자체 등 인증 중소기업 중 재무안정성, 수익성 등 6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 - ** (선정기준) 신용등급(업력 7년 이상은 'BB-'→'BB')·퇴사율(적용기간 3→12개월) 기준 강화(전용채용관 개설) 잡코리아, 사람인, 워크넷 등 4곳 + 인크루트, 원티드 2곳 추가

2]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^{고용부}

- (**장려금**)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* 신설('24년^안 2.4만명, 483억원)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** 확대('23년 9만→'24년^안 12만명, 6,007억원) 등 지원
 - * 빈일자리 업종(제조업 등 10개) 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
 - ** 중소기업이 취업취약청년 채용시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- (**근로복지**) 원청이 출연하여 협력사 근로복지를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* 및 2·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형성** 지원 신설
 - * 상생협약 체결시 정부 매칭 한도 10→20억원으로 확대
 - ** 원청 노사가 2·3차 협력사 복지기금 출연 시 매칭 보조 100~200%(총 50억원)

◇ 상생임금토 권고문('23.12월)을 토대로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, 상생과 연대의 노동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('24.上)

Ⅵ. 향후 추진일정

단계	정책 과제	부처·기관	추진시기
재학	•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확대	고용부	‘24.1월
	•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	고용부	‘24.1월
	• 지역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제공 확대	고용부	‘24년
	• 민간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	고용부	‘24.1월
	•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	전 부처	‘24년
	•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	기재부	‘24년
	• ‘진로-교육-취업연계 지원’ 원스톱 프로젝트(WE-Meet) 확대	교육부	‘24.상
	• 일경험통합플랫폼 구축·운영	고용부	‘24.1월
	•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확대	고용부	‘24.3월
	• ‘24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정	교육부	‘24.상
	• 첨단산업 인재양성 집중 교육과정(부트캠프)	교육부	‘24.상
	• K-Digital Training 확대	고용부	‘23.12월
	•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할인	고용부	‘24년
재직	• 신입사원 온보딩·인사담당 조직문화 교육 신설	고용부	‘24년
	•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비, 컨설팅, 장려금 지원	고용부	‘24.1월
	•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신설	고용부	‘24.1분기
구직	• ^{가칭}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설	고용부	‘24년
	•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	고용부	‘24.1월
	• 니트 특화형 일경험 신설	고용부	‘24.2분기
	• 청년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 신설	고용부	‘24년

단계	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	추진시기
취약 청년	• 고립은둔청년 지원 강화	복지부	‘24년
	• 가족돌봄청년 지원 강화	복지부	‘24년
	•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	복지부	‘24년
	• 자활근로 확대	복지부	‘24년
	•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	고용부	‘24년
	• 학교밖청소년 자립·취업 지원 강화	여가부	‘24년
인프라	•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	국조·고용·복지·여가·행안부	‘23.12월
	• 공공데이터 활용 취약청년 발굴체계 구축	고용·교육·복지부	‘24년
	• ^{가칭} 청년 미래센터 신설	복지부	‘24년
	• 노후산단 개선(산리단길)	산업부	‘24년
	• 스마트공장 전환 확대	중기부	‘24.상
	• 참 괜찮은 기업 선정기준 강화	중기부	‘24.8월
	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	고용부	‘24.1월
	•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설	고용부	‘24.1월
	• 상생연대형성 지원	고용부	‘24년
	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	고용부 등	‘24.上